

## < FDA, 영양성분표 준수일 18개월 연장 >

LA지사

### 1. 업데이트 일자 : 2018.5.4

□ 발표 내용 주소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8/05/04/2018-09476/food-labeling-revision-of-the-nutrition-and-supplement-facts-labels-and-serving-sizes-of-foods-that>

□ 기사 출처

<https://www.fooddive.com/news/fda-extends-deadline-for-nutrition-facts-update-18-months/522756/>

### 2. 발표 제목 : <FDA, 영양성분표 준수일 18개월 연장 >

### 3. 발표 내용

FDA는 최근 연방관보를 통해 새로운 영양분석표에 대한 준수기한을 18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간 판매량이 최소 1천만 달러 이상의 제조업체는 2020년까지 새로운 라벨을 갖춰야 하며 소규모 제조업체들은 2021년까지 준수하면 된다.

새로운 라벨 규정은 지방 성분에서 칼로리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추가된 당분의 1회 제공량을 그램으로 적어야 하며 당분의 일일 섭취량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또한 라벨에 포함될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업데이트하고 칼로리 정보 표시는 강조하며, 분석표 포맷 및 기준값을 수정해야 한다.

FDA는 최종 규제 발표 이후에 규정과 준수기한에 관해 5만 개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신중히 검토한 결과, 준수기한을 연간 판매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또는 2021년 1월 1일로 약 1.5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변 결정으로 FDA는 최종 규제의 대상이 되는 모든 제조업체들이 규제 발표 이후 제기되었던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준수기한이 오기 전에 제조업체들은 여러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업데이트된 영양분석표 라벨을 완성하고 부착해야 한다.

연방 규제 발표 후에 소비자와 제조업체, 산업 단체, 소비자 단체, 학계, 보건 전문가 등 각계 각층으로부터 5만 개의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규제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FDA는 지난해 10월 준수기한의 연장을 제한했었지만 당시 칭찬과 비난을 동시에 받은 적이 있어 이번에는 연방 관보를 통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이번 결정이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소비자 그룹 및 보건 당국의 우려를 무시하지 않고 잘 수렴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효과도 내재되어 있다.

연방 관보가 하는 일은 공식적으로 규제가 만들어진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소비자들을 교육 시키기 위함이다. Scott Gottlieb FDA 위원장은 “2015년에 사망한 미국인 5명 중 1명은 좋지 못한 식습관과 관련 있다. 소비자들이 자신이 먹는 것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핵심” 이라고 언급하며 “FDA는 식품 라벨링 연구를 포함해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대중뿐 아니라 저학력 소비자와 영양 관련 만성 질환에 대한 위험이 높은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라벨 교육 활동을 개발, 보급, 평가 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계속 구축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연방 관보에 따르면 보건 복지부의 기관들뿐 아니라 건강 교육에 관심이 있는 보건 전문가, 제조업체, 소매업체 및 비영리 단체들이 협력하여 건강 정보 제공을 위한 새로운 캠페인이 시작될 예정이다.

공공 이익 대변 과학 센터 Peter Lurie대표는 “이번 FDA 발표는 기업들이 법률 기한을 기다리기 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지금 당장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미국 식료품 제조업자협회 Pamela Baily 대표는 “이번 발표가 기업들에게 소비자 혼란 및 추가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할 시간을 제공해주었다” 고 FDA의 결정을 환영했다.

준수기한은 연기되었지만 제조업체들은 이미 새로운 영양분석표로 변경하고 있는 추세이다. 라벨 인사이트(Label Insight)의 블로그에 따르면 새로운 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2만 9,08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